지역 메아리

완주군, 관내 초등학교 구강 건강관리사업 실시

완주군이 관내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어린이들의 구강을 관리한다.

완주군보건소는 오는 27일부터 관내 30개 초등학교를 방문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충치예방과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한 구강건강관리사업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을 희망하는 학교에서 사전신청서를 받아 일정을 협의한 후, 이동진료차량과 보건소 구강보건 인력이 학교로 방문해 구강검진, 올바른 구강관리방법, 불소바니쉬도포, 치아 홈 메우기 등 예방진료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학령기 아동은 영구치 맹출 시기로 치아우식증 등 구강질환 발생률이 높고, 한번 발생되면 지속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학년별 눈높이에 맞는 개별 상담 및 올바른 칫솔질 지도가 필요하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평생 구강건강의 기초가 되는 시기에 바른 구강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년도에도 관내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바니쉬 도포를 추진했으며 1~2학년 410명을 대상으로 무료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칫솔모가 많이 닳거나 벌어진 칫솔을 새 칫솔로 교체 해주기도 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김제시는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상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여 주거 실태와 대상자 욕구에 맞는 집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지 답사 중에 있으며 다음 달 초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복권기금을 활용해 기초수급자, 차상위 및 기타 저소득층에 지붕개량, 화장실 개보수, 도배장판 교체 등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김제시는 4억2400만원 사업비로 122가구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고 올해 6억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80가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귀농 창업농 지원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3억원까지 융자… 올해 84억원 지원, 50명 창업

농경문화의 발생지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농업도시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귀농창업농 과 청년창업농 등 농업 창업하기 좋은 곳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귀농 창업농 지원사업은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조건으로 최대 3억원까지 융자를 받아 귀농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84억원을 지원받아 50명이 창업했다.

2019년 상반기 귀농 창업농 지원사업 신청자의 사업비는 44억원인데 김제시는 3억 7천 5백만원이 배정되어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나 박준배 시장의 적극적인 행정과 발빠른 대응 덕분에 27억원을 배정받아 15명이 창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창업농은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이 독립경영 1년차는 매월 100만원, 독립경영 2년차는 매월 90만원, 독립경영 3년차는 80만원을 지원받는 영농정착지원 사업과 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황의 조건으로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올해 94명이 신청해 32명이 지원받았고, 2019년 65명이 신청하여 32명이 지원 받았다.

김제시는 농경지가 많아 토지를 구입하기 용이하고, 쌀, 보리, 논콩, 시설하우스 감자, 딸기, 토마토, 과수 등 다양한 작목의 재배적지이고 작목별 재배기술 교육 지원 및 생산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토질이 좋고 자연재해가 적어 창업하기 좋은 곳으로 각광 받고 있다.

또한 백산면에 위치한 민간육종단지에서 우수한 종자를 생산하고 있고, 백구면에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 밸리 19.4ha(사업비 631억)를 2022년까지 조성하여 IC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농업의 메카로 자리 잡을 것이며, 농업기술의 산실인 농촌진흥청이 인접한 대한민국 최고의 농생명 복합도시 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김제시는 농경문화의 발상지로 대한민국 농업의 전통을 보존·계승해 왔으며, 민간육종단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고 있어 김제농업의 역사가 대한민국 농업의 역사라고 자부 한다. 그래서 김제시는 농업과 농민을 귀하게 여기는 귀농(貴農)도시 이다. 하늘(天)과 땅(地)과 사람(人)이 어울어지는 천지인의 고장 지평선 김제에서 창업농 여러분이 귀농(貴農)의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총력

3월~4월 이행기간 만료 대상 농가, 9월까지 기한 연장

완주군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대상 농가 중 72개 농가는 오는 27일, 11개 농가는 4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군은 해당 농가들의 적법화 이행률이 저조하자 농가들의 불이익을 최소화기 위해 이행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64곳 농가에 대해 9월 27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11곳의 농가에 대해서는 개별 연락을 통해 이행기간 만료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며, "군에서도 이행기간 안에 모든 축사들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50%)과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가축분뇨법에 의거 단계별로 사용중지, 축사폐쇄명령,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완주=이중복 기자

완주군, 로컬푸드 가공품 품질관리 강화

완주군이 로컬푸드 가공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완주군은 직매장에 가공품을 납품하는 사업주 및 납품을 희망하는 예비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2019년 로컬푸드 가공분야 통합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통합관리 사업은 안전교육과 성분분석으로 진행된다.

우선 기존 납품사업주 및 예비 납품 사업주를 대상으로 식품정책 및 안전관리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직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성분분석도 진행된다.

전북대학교 HACCP 교육원과 연계해 정부의 식품정책방향,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식품표기사항 등을 숙지하게 된다.

또한, 2020년 HACCP 의무화를 대비해 준비 및 이행사항과 사업주들이 어려워하는 원료수불부·생산일지·판매일지 작성 등 실습교육이 병행 추진된다. 기존납품 사업주는 1회 3시간, 신규 납품예정자는 4회 12시간을 이수해야하며, 교육을 수료해야만 직매장에 납품할 수 있다.

품질관리는 직매장에 납품하고 있는 가공품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성분분석, 표기사항 모니터링, 포장 및 취급기준 등을 조사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나 위험요소 등을 점검해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된다.

현재 완주군이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에는 83개 업체가 770품목의 가공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직매장 전체 매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직매장내 가공품은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품목으로 소비자는 더 다양하고 안전한 가공품을 구매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더욱더 안전한 가공품을 생산·공급해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20회 완주 삼례딸기대축제'에서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펼쳐진다.

'제20회 완주 삼례딸기 대축제'

삼례행정복지센터 야외공연장 및 하리마을 일원 … 29일~31일까지

완주군에 빨간 맛이 가득 퍼진다.

완주군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삼례행정복지센터 야외공연장 및 삼례읍 하리마을 일원에서 '제20회 완주 삼례딸기대축제'가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완주군이 주최하고 삼례농협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딸기 수확체험, 딸기 품평회, 딸기를 이용한 가공체험 및 판매, 캐릭터 페인팅 등 딸기를 소재로 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또한 비쥬얼미디어아트미술관, 디자인 뮤지엄, 책박물관 등의 문화체험을 비롯해 풍물패 길놀이, 난타공연, 도민노래자랑, 티브로드 공개방송 등의 문화 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진다.

특히,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기 위해 딸기 먹기 대회, 연인끼리 딸기 빨리 먹기 등이 진행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딸기를 구입할 수 있는 딸기 즉석 경매도 이뤄진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삼례딸기는 당도가 높고 맛이 좋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다"며 "축제가 주말과 휴일에 열리는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고품질 삼례딸기를 맛보고 완주 문화예술의 멋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딸기 모주 생산·공급을 위한 원묘사업장, 우량묘 생산을 위한 육묘시설 지원, 노동력 절감 및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고설재배시설, 친환경 웰빙 딸기 생산을 위한 미생물 공급, 시설현대화 사업 등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서 펼칠 계획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니어클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사업별 간담회 개최

김제시니어클럽은 지난 4일부터 26일(14일간)까지 김제시니어클럽 사무실에서 11개 사업단 총 823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별 참여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해주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식사대접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김제시니어클럽은 시장형 사업으로 사계절농장, 늘푸른두부사업단, 시니어건강원사업단, 늘푸른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익활동 사업은 아름다운크린사업, 놀이터환경지킴이사업, 승강장 시설정비사업, 우리동네주차장가꾸기 사업, 학교급식도우미사업, 학교주변 환경개선사업, 경로당환경지킴이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229명이 증원된 12개 사업에 878명이 참여자로 활동 중에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